

# SK하이닉스, 특허기술 무상 이전

## 기술 나눔 업무협약 체결 ... 위탁 240건 가운데 41건 중소기업 양도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상용화를 촉진하는 행사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1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 산업기술진흥원과 SK하이닉스,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술 나눔 확산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대기업 최초로 240건의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위탁했으며 41개의 기술이 15개 중소·중견기업에 무료로 이전됐다.

양도된 기술은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외 국가에 출원·등록된 특허 기술로 기술을 활용할 의지와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양도받을 중소·중견기업들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SK하이닉스는 기술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을 넘겨받은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기술 상용화나 특허분쟁 대응 등 다방면에서 지원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은행을 두고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특허 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사업 노하우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은행에 각종 기술을 모아두는 기술 풀(Pool)을 구축하고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13>